

---

# 모범적 논술 지도 사례

— 한국교원대학교 교양 필수 과목  
‘사고와 표현’ 사이버 강의를 중심으로 —

성낙수 · 한국교원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

## I. 머리말

본고에서는 ‘모범적 논술 지도 사례’의 하나로 한국교원대학교에서 필수 교양 과목으로 부여하고 있는 ‘사고와 표현’ 중 사이버 강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과목은 교양 국어가 없어지고, 그 대안으로 논술 교육을 위주로 한 학기 동안 학습하도록 되어 있다.

이 강의는 ‘혼사이버대학’이라고 하는, 충청북도 중심의 연합 사이버 운영 시스템에서 여러 대학의 강의를 의뢰받아 이루어지는 것 중의 하나다. 방법은 강사가 강의 내용을 웹 사이트에 올리면, 학습자들이 이를 보고 학습한다. 부여한 과제를 웹 사이트로 제출하면, 평가자가 이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학습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하며, 평가 내용을 집합하여 학기 말에 성적을 준다. 필자는 이 강의는 먼저 논술의 과정을 차례대로 학습 과제로 제시하고, 쓰기 혹은 읽기 과제를 주고, 이를 평가하여 학기 말에 총체적인 학점을 부여하는 식으로 이 강의를 운영하였다.

본고에서는 이 강의의 내용을 축소하고, 예문을 통하여 그 과정을 살펴 보며, 끝에서 학습자 스스로 자신과 강의 내용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를 예시하여 어떤 효과를 가져왔나를 제시해 보려 한다.

## II. 학습 내용

이 장에서는 학습 준비에 관한 것, 학습 과정에 관한 것, 학습 평가에 관한 것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기로 한다.

### 1. 학습 준비

학습 준비는 먼저 학습자들이 강사가 제시하는 ‘강의 계획서’와 ‘주별 수업 계획서’ 등을 참조하여, 수강 신청을 함으로써 시작된다. 강의 계획서는 다음과 같다.

## 강 의 계 획 서

### 1. 교과목명 및 담당 교수(생략)

### 2. 강의 목적 및 개요

가. 사고와 언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한다.

나. 사고를 글로 표현하는 일반적인 원리를 습득하여 교양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작문 능력을 기르고, 특히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논리적 글쓰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학생의 작문 능력을 배양한다.

다. 강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질의·응답, 과제 제출, 과제 교정 등을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여 진행한다.

### 3. 수업 방법(교수 매체 활용 등 포함)

가. 수업 활용 웹 페이지: 한사이버대학(<http://hcu.ac.kr>:8000)

나. 웹 강의, 토의방 활용, 과제 교정, 개별 활동·조별 활동 및 상호 평가

### 4. 강의 교재 및 참고 문헌

강의 교재 및 참고 문헌	저자명	출판 연도	출판사 및 관련 웹 사이트	비고 (특징)
교재: 없음 참고 문헌: 논술 강좌, 한글 맞춤법 강의	성낙수 이희승·안병희	1997 2000	배재서관 신구문화사	

### 5. 주(시간)별 수업 계획서: (붙임: 수업 계획서 참조)

### 6. 평가 방법

평가 방법	중간시험 (횟수)	기말시험	과제물 (횟수)	발표	기타 (질의 응답)	계	비고 (기타와 관련 평가 방법 기재)
반영률	%	%	80% (8회)		20%	100% (출석 %)	모든 평가는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짐

### 7. 수강생 유의 사항 (학습 준비 사항을 개조식으로 기술)

가. 매주 제시되는 강의 자료를 ‘한사이버대학’ 홈페이지에서 읽고 숙지한다.

나. 강의 자료에 제시되는 강의 내용 관련 개별 활동 및 조별 활동을 확인·수행하고 과제 제출 게시판에 기한 내에 제출한다.

주(시간)별 수업 계획서는 다음과 같다.

<표2>

주(시간)	수업 내용	수업 진행 방법	과제 및 참고 자료	비고
1(1-3)	강의 소개 (작문의 개념과 필요성, 작문의 종류)	웹 강의		
2(4-6)	논술의 필요성·정의	웹 강의	읽기 과제	
3(7-9)	논술의 종류, 제재, 구상, 개요 작성	웹 강의	쓰기 과제	
4(10-12)	주제, 제목	웹 강의	읽기 과제	
5(13-15)	추론, 명제	웹 강의	쓰기 과제	
6(16-18)	논증	웹 강의	읽기 과제	
7(19-21)	논술의 전개-통일성, 연결성	웹 강의	쓰기 과제	
8(22-24)	논술의 전개-강조성	웹 강의	읽기 과제	
9(25-27)	서술 방법-설명법, 묘사법, 서사법	웹 강의	쓰기 과제	
10(28-30)	문체론	웹 강의	읽기 과제	
11(31-33)	논술의 짜임새-문단	웹 강의	쓰기 과제	
12(33-36)	논술의 짜임새-문장	웹 강의	읽기 과제	
13(37-39)	논술의 짜임새-단어	웹 강의	쓰기 과제	
14(40-42)	논술 시험 유형 등	웹 강의	읽기 과제	
15(43-45)	종합 평가	웹 강의 평가	총체적 과제물 점검	

위에서 보인 <표1>, <표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한 학기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학습 과제’와 ‘읽기 과제’ 혹은 ‘쓰기 과제’를 웹 사이트에 게재하면, 학습자들이 이를 학습하고, 과제를 완성해서 웹으로 보내 주면, 평가자가 이를 평가해서 웹에 그 점수를 올려 주어 본인이 알 수 있도록 하고, 점수를 누가 기록하여 두었다가 학기 말에 총점을 산출한다.

## 2. 학습 과정

‘학습 과정’은 ‘학습 과제’를 단계적으로 학습하고, ‘읽기 과제’ 혹은 ‘쓰기 과제’를 완성해서 제출하는 것이다.

### (1) 학습 과제

‘학습 과제’: 논술의 이론을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그 예를 하나 간단히 보이면 다음과 같다.

<예1>

#### 1. 논술의 필요성

요즘 진학을 앞에 둔 학생들이나 학부모, 취업을 희망하는 젊은이들 치고 ‘논술’이라는 것에 대하여 들어 보지 못했거나, 그 대책에 대하여 고민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피교육자를 가르치는 국어 선생님들조차도 올바르게 효과적인 논술 지도에 대하여 뚜렷한 방안이나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도 어차피 입시나 취직 시험은 치러질 것이므로 막연히 두려움 속에서 기다려 보는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도 하다.

‘논술’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렵고 막연한 것인가? 그것은 ‘논술’이 사전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고정된 유형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쓰는 방법이 확립되어 있는 것도 아닌 데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다. 또한 그런 것들이 실재한다 하더라도 평소에 관심이 없었거나, 연습을 해 두지 않았으면, 역시 ‘논술’은 어려운 과제일 수밖에 없다.(중략)

현대화, 세계화되어 가는 요즘에는 무비판적인 사고보다는 비판적인 사고, 맹종보다는 창의성이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 대학에서나 직장에서도 그런 사람을 선별하기 위하여 ‘논술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다. 교육이 앞장서서 그런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나 사회에서 그런 사람을 요구하니, 교육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되어 버렸다.(하략)

## (2) 읽기 과제

‘읽기 과제’는 그날의 신문들에서 좋은 사설이나 논평, 시평 등에서 발췌하거나, 고전 혹은 각종 문헌에서 논술 학습에 적합한 글을 선택해서 읽게 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학습 과제에서 학습한 내용을 질의한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예2>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이산 상봉 시간이 없는데……

이번 제4차 남북 적십자 회담은 북한이 이산가족, 국군 포로 및 납북자 문제와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호재였다. 남북은 지난달 경제협력추진위를 통해 남이 북에 쌀과 비료를 지원하고 경의선을 연결하기로 합의하고 12년 만에 통일 축구 대회를 개최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이달 중에 군사 실무 회담을 개최하고 북측이 부산 아시아 경기 대회에 참가하는 등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양측의 노력이 계속되는 상황이라 인도적 성격의 적십자 회담에 거는 기대는 내심 작지 않았다.

#### ▼ 부자-형제 만남 급격히 줄어 ▼

그러나 회담 결과는 기대와는 달리 최근의 한반도 화해 분위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중략)

#### ▼ 상설 면회소 설치 서둘러야 ▼

6·15 공동 선언 제3항은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들이 고령이고 매년 사망자가 늘어나는 등 해를 거듭할수록 문제 해결이 어려워지고 있다. 서로의 입장 차이로 구체적인 이행 일자를 명시하는 데 실패한 것은 이산가족 당사자들의 절박한 사정을 무시한 것이다. 최근의 화해 분위기를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남북은 이산가족 문제와 국군 포로 및 납북자 문제에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중략)

이산가족 문제가 시급성의 문제라면 국군 포로 문제는 자국민 보호라는 정부의 기본 임무를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북한학)

문제1. 위 글의 주제는 무엇인가? \_\_\_\_\_

문제2. 마지막 단락의 소주제는 무엇인가? \_\_\_\_\_

이에 대한 과제 제출 중 다음과 같은 하나의 예를 들어 보기로 한다.

영어교육과 2학년 이름 한00

1. 위 글의 주제는 무엇인가?

답안 : 이산가족 문제와 국군 포로 및 납북자 문제를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조속히 해결하자.

2. 마지막 단락의 소주제는 무엇인가?

답안 : 정부는 국군 포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예3>

### (3) 쓰기 과제

쓰기 과제는 다양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먼저 글을 제시하고, 거기에서 제시되는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쓰는 방식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는 이해의 측면과 표현의 측면을 함께 학습시키려는 의도에서 제시하는

것이다. 다음의 예를 보자.

※ 다음 글을 읽고 문제에 답해 보자.

맹자가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옛날 선왕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 잔인한 정치를 하지 못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써 잔인한 정치를 하지 않는다면 천하를 다스리는 일은 손바닥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될 것이다. (중략)

[孟子曰 人皆有不忍人之心 先王有不忍人之心 斯有不忍人之政矣 以不忍人之心 行不忍人之政治天下 可運之掌上 所以謂人皆有不忍人之心者 今人乍見孺子 將入於井 皆有術惕惻隱之心 非所以內交於孺子之父母也 非所以要譽於鄉黨朋友也 非惡其聲而然也 由是觀之 無惻隱之心 非人也 無羞惡之心 非人也 無辭讓之心 非人也 無是非之心 非人也 惻隱之心 仁之端也 羞惡之心 義之端也 辭讓之心 禮之端也 是非之心 智之端也 人之有是四端也 猶其有四端也 有是四端而自謂不能者 自賊者也 謂其君不能者 賊其君者也 凡有四端於我者 智皆擴而充之矣 若火之始然 泉之始達 苟能充之 足以保四海 苟不充之 不足以事父母]

<맹자, “孟子”에서>

[문제]

1. 위 글에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네 가지 본성(四端)을 설명하고 있다. 본문(한문)에서 다음의 단어에 맞는 구절을 찾아 써 보자.

가. 仁 : (            )    나. 義 : (            )  
다. 禮 : (            )    라. 智 : (            )

2. 위의 사단이 현대의 젊은이들에게도 해당된다는 근거를 제시해 보자. (각각 1,000자 이내)

<예4>

이에 대한 답안을 하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음악교육과 2학년 신○○

1.

- 가. 仁 : (惻隱之心 仁之端也)
- 나. 義 : (羞惡之心 義之端也)
- 다. 禮 : (辭讓之心 禮之端也)
- 라. 智 : (是非之心 智之端也)

2.

1) 仁(가엾고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의 근거: 얼마 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태풍 '루사'로 집을 잃고 힘겨워하는 수재민들이 전국 각지에서 속출했다. 별로 넉넉하지도 못한 집안 형편에 하루하루 생활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생필품이 전부 물에 젖은 일은 물론이고, 심지어 고3 학생의 교과서까지도 전부 젖어 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생긴 것이다. 이미 수해가 발생한 지 2주가 됐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복구 작업을 한 덕분에 예전의 모습을 조금씩 되찾아 가고 있었지만 미처 도움의 손길이 뻗지 못한 곳곳에는 아직도 쓰레기와 돌더미들이 흉물스럽게 쌓여 있는 광경을 TV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 안타까운 마음에 이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손길들도 신문 지상에서 눈에 띈다. 각계 유명 인사나 대기업 회장의 거액 기부금, 각 방송사 기부금, 대형 교회 모금 그리고 조금의 정부 지원금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더욱 눈길을 끄는 것은 각지의 젊은 대학생들의 수해복구봉사활동이다. 많은 젊은이들이 수해 복구 봉사 활동에 대한 특별한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저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웃을 가엾고 불쌍하다고 생각해서 그들의 시간과 에너지를 나누는 것이다. 그들은 직접 수해 현장을 방문, 복구 작업에 참여하면서 웃음을 잃어버린 지역 주민들을 위해 화기에애한 현장 분위기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 큰돈도 중요하겠지만, 진정 젊은이들의 이러한 건강한 마음이 어려운 일을 당한 우리의 이웃들에게 더 큰 용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2) 義(악을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의 근거: 현재 내가 거주하고 있는 동네에 사립 종합 대학교가 있다. 저녁마다 그곳을 통과해서 산책하는데, 가장 유심히 살펴보는 데가 바로 게시판이다. 게시판에는 아르바이트 모집, 학원, 자취방, 어학연수, 유학 등의 수많은 광고물이 부착돼 있기도 하지만, 특히 나의 눈길을

끄는 것은 학교 내, 외적인 비리에 대한 고발 대자보이다. 사립 대학교이다 보니, 재단과 관련한 교수들의 비리 의혹도 있을 법한데, 학교 학생들은 그것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려 하지 않고, 잘못된 것은 뿌리까지 뽑아야 한다고 말하거나 하듯이, 부정 교수에 대한 의혹을 낱알이 공개하고, 사과를 촉구한다. 대자보 뿐만 아니라, 데모도 주저하지 않는다. 현대 젊은이들이 그저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무장한 채, 자기 시간을 온통 자신에게만 투자한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인 것이다. 끝내 그 교수는 사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또 얼마 전 미군 2명이 한 국민 여중생 2명을 치사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 젊은 대학생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 사건에 대한 부당함을 선전하고, 우리 젊은이들의 의식 각성을 촉구하였다. 몇 십 년 전 젊은이들이 義로 무장하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같은 굽직한 움직임을 선도했다면, 현대의 젊은이들은 크게 눈에 띄지는 않아도, 숨은 곳곳에서 악을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에서 의를 실현하기 위해 땀 흘리며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3) 禮(사양하는 마음)의 근거: 언젠가, 장승수가 쓴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다. 내용은 지극한 가난 때문에 동생의 학비와 집안의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막노동을 하면서 주경야독으로 수능시험을 위해 공부한 끝에 서울대 법대를 수석으로 합격하기까지의 장승수의 경험담이었다. 책의 내용도 굉장히 감동적이었다. 나뿐만 아니라, 그 어떤 수험생이라도 그 책을 읽었다면, 나도 할 수 있을 거란 어렴풋한 희망을 가졌으리라고 생각한다. 여하튼, 그 책을 그렇게 감명 깊게 읽고 난 후, 어느 날 우연히 TV 프로그램 아침 토크쇼에 그가 나온 것을 보게 되었다. 자기가 쓴 책과 자기 인생에 대해서 말하는데, 놀라웠던 것은, 장승수가 한창 그의 놀라운 기적 같은 성공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던 때, 한 학부모가 자기의 아들을 가르쳐 준다면, 강남의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를 선물하겠다고 한 것을 거절했다고 말한 것이었다. 아마도 장승수는 지난날의 가난에 찌든 자신의 모습이 진저리가 났을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유혹에 쉽게 넘어갔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장승수는 그러한 그럴듯한 제안을 단번에 거절한 것이다. 알맞은 대가, 정확하게 노력한 만큼만의 대가만 기대한 그의 정직함에 감동했다.

4) 智(선악을 구별하는 마음)의 근거: 지난 여름 계절 학기 때, 충북대학교에서 학급 행정과 경영이라는 과목을 수강하게 되었다. 우리 한국교원대학교와는 뭔가 다른 분위기가 학교 전체를 감돌았다. 특이했던 것은, 그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학생 주체의 크고 작은 운동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었다. 요즘 대학 문화는 솔직히 말하자면, 그렇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지는 않다. 대표적인 것들이 커닝이나 대리 출석 같은 것들이다. 이것들이 대학생들

사이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오히려 이러한 것들을 반대하는 대학생이 소외 당할 정도로 공공연히 자행돼 왔던 게 현실이었다. 하지만, 충북대학교에서는 이러한 것들에 대항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었다. 각 강의동마다 커닝과 대리 출석 같은 것은, 노력한 만큼의 적절한 보상 체계를 방해하고, 건전한 대학 문화에 역행하는 것이기에 사라져야 한다고 광고했다. 어떤 대학생은 고등학교 때까지 힘들게 시달려 와서, 대학 입학해서 자유를 누릴 권리까지 빼앗는 게 아니냐고 반문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진정으로 옳고 그른 것을 명확하게 판단하고 그러한 판단을 좇아 실천하는 지성적인 대학생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요즘 대학가에서 조용하게 일어나고 있는 커닝이나 대리 출석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점을 얻어 내는 것에 대한 대항 운동은 현대 젊은이들이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근거가 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믿어서 의심하지 않는다.

위의 '2'와 같은 답안을 채점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 문제점을 바르게 지적하였는가?
- \* 해결 방안을 논리적으로 모색하였는가?
- \* 일반적인 글쓰기 방법을 잘 지켰는가?

<예5>를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 글은 잘 써서 선택했다기보다는 많은 작품들 중에서 보통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글이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다. '사단(四端)'을 실생활에서 제재를 끌어다가 쓴 것이 그런대로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仁'으로는 태풍 '루사'를 제재로 하여 이웃들이 수재민을 돕는 것으로 입증하였고, '義'로는 어떤 대학교의 고발 대자보를 들어 학생들의 불의에 대항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미군이 여중생 2명을 치사시킨 것에 시민들이 규탄하는 등의 사건을 들어 입증하였고, '禮'로는 서울대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한 학생의 검양을 들어 증명하였으며, '智'로는 자신이 수강한 대학교의 학생들이 건전한 대학 문화에 역행하는 것들이 사라져야 한다고 노력하는 데에서 발견한 바

들 예를 들었다.

논리나 진리는 먼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주변에 산재해 있고, 사소한 것에서도 교훈을 얻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라고 생각하며, 유의점으로 지시한 사항과도 맞는다고 본다.

주제만 제시하고, 다음과 같은 쓰기 과제를 제시하기도 한다.

<예6>

\*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논술하시오.

1. 주제: 남, 북한의 동일 민족이 오랜 기간 정치·사상·문화적으로 격리되어 있음으로 생기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시오.
2. 자신의 독특한 의견을 분명히 밝힐 것.
3. 1,200자 내외로 쓸 것.

이 문제에 대한 답안의 예를 하나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예7>

지리교육과 2학년 채○○

50여 년간의 분단은 모든 부문에서의 차이를 배태하게 되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최근 급속히 많아지고 있는 남북 교류로 우리는 남북의 공통성과 차이를 계속 확인하고 그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막을 올린 부산 아시안 게임은 북한의 참가로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또 북측의 선수들과 응원단 모습은 연일 신문과 텔레비전에 오르내리는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생면부지인 그들의 모습이 낯설지 않으면서도 우선 그들과의 인터뷰에서 볼 수 있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일까?

다른 무엇보다 긴 세월동안 떨어져 있었다는 점이 의사소통 문제의 주요한 요인 중 하나일 것이다. 사람들이 오랜 기간 떨어져 지내다 보면 친했던 사이라도 서먹 서먹하고, 말을 해도 잘 통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남북한의 경우,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고 반목하면서 다른 가치 규범을 가지고 살아왔으니 기본적인 의사소통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일지 모른다.

우리나라는 광복과 함께 국토가 분단이 되면서 서로 다른 이념과 정치 체제를 가진 채 5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왔고 이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져왔다. 이제 그 문제점들과 함께 해결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앞서도 언급했던 언어의 이질화로 인한 의사소통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동일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맞춤법과 발음에서부터 오는 큰 차이는 민족 간의 대화 단절을 예고하는 것이다. 예전 서울에 온 귀순자들은 끝없는 차량 행렬에 놀라고 각종 간판에 어안이 병병해졌다고 한다. 반면, 평양을 방문한 남한 사람들은 전투적 용어가 넘쳐 나는 정치적 간판에 질리고 낯선 억양과 용어 때문에 말을 알아듣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이렇듯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에서 오는 이질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남한과 북한의 잦은 왕래가 필요하다. 아울러 남한은 무분별한 외래어의 사용을 자제하고 북한은 한자 폐지 운동 등의 과격한 언어 순화 운동을 자제하는 융통성을 보여야 한다.

이념 대결로 얼룩진 채 오랜 시간을 다른 체제 속에서 지낸 남과 북은 모두 정상적인 정치 구조를 형성하지 못하고 왜곡된 가치관과 신념을 가지게 되었다. 정치 구조에서 남과 북은 더 이상 서로의 이념 차이를 권력 유지에 이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무엇보다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시되는 것은 이산가족 문제이다.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하나 수만 명의 이산가족들 가운데 불과 수백 명의 사람들만이 상봉할 수 있었고, 비용 또한 적지 않았다. 이산가족 문제는 면회소 설치 의견 합의에 앞서서 그보다 더 작은 상호 편지 교환부터라도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 밖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경향으로 나뉠 수 있는 남과 북의 가치관 차이는 자신들과 다른 의식을 가지는 상대를 이상하게만 보는 경향을 가져온다. 가치관 차이에 따른 문제는 무엇보다 서로를 이해하는 태도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학생 예술단의 서울 공연이나, 스포츠 친선 경기, 남한 가수들의 평양 공연 등 남과 북은 서로를 이해하려는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야 한다.

이제껏 살펴본바 남한과 북한은 지금까지의 서로 다른 체제 때문에 많은 혼란과 갈등의 문제가 있지만, 서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산가족의 만남, 남북 정상 회담, 예술, 문화, 체육, 학문 등의 교류를 통하여 평화적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 미래 통일에 대한 준비를 천천히 시작하여야 하겠다.

<예7>을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 글도 잘 써서 선택한 것은 아니나, 대학교 1학년생으로서는 제시한 문제를 잘 이해하고, 나름대로는 그 해결책을 타당성 있게 나타냈다고 사료되었다.

예컨대 50여 년간의 분단으로 언어 장애가 생겨 인터뷰에서 볼 수 있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이라든가, 또한 서울에 온 귀순자들은 끝없는 차량 행렬에 놀라고 각종 간판에 놀랐다는 등의 예를 들었고, 평양을 방문한 남한 사람들은 전투적 용어가 넘쳐 나는 정치적 간판에 질리고 낮은 억양과 용어 때문에 말을 알아듣는 데 시간이 걸렸다는 등의 이질감을 잘 표현하였다.

이런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이산 가족 문제를 상호 편지 교환부터라도 시작해서 해결하고, 학생 예술단의 서울 공연이나, 스포츠 친선 경기, 남한 가수들의 평양 공연 등 남과 북은 서로를 이해하려는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야 한다는 등의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문장력이나 단락의 구분, 단어의 선택도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와 같은 쓰기 문제는 위에서 제시한 조건을 검토할 뿐만 아니라,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등의 규범적인 문제도 적용하여 평가한다.

논술에 필요한, 적절한 어휘의 사용을 진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쓰기 문제를 제시하기도 한다.

<예8>

1. 다음 단어를 표준어로 바꾸어 보자.

끄나불:(            )    푼침:(            )    강남콩:(            )  
저으기:(            )    네째:(            )    숫나사:(            )  
보통이:(            )    으레:(            )    트기:(            )  
무우:(            )    귀개:(            )    귀에지:(            )  
우두머니:(            )    총각미역:(            )    백말:(            )  
빈자떡:(            )    낫우다:(            )    성냥알:(            )  
살막이:(            )    쪽밤:(            )    영관:(            )

2. 다음 단어들의 외연적 의미와 내포적 의미를 찾아 보자.

(1) 우산

외연적 의미 :

내포적 의미 :    가. \_\_\_\_\_  
                      나. \_\_\_\_\_

(2) 소

외연적 의미 :

내포적 의미 :    가. \_\_\_\_\_  
                      나. \_\_\_\_\_  
                      다. \_\_\_\_\_

이 과제에 대한 답안을 하나 예로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역사교육과 2학년 박○○

1.

끄나불:(끄나풀), 폰침:(분침), 강남콩:(강낭콩), 저으기:(적이), 냇쟁:(넋쟁), 솟나사:(수나사), 보통이:(보통이), 으레:(으레), 트기:(튀기), 무우:(무), 귀개:(귀이개), 귀에 지:(귀지), 우두머니:(우두커니), 총각미역:(꼭지미역), 백말:(흰말), 빈자떡:(빈대떡), 낫우다:(고치다) 성냥알:(대장알) 살막이:(살풀이) 쪽밤:(쌍동밤) 영판:(아주)

2.

(1) 우산

외연적 의미: 금속제 살이나 대오리 살에 방수천 또는 유지(油紙)를 발라 비가 올 때 손에 펴 들고 머리 위를 가려서 비를 막는 물건

내포적 의미: 가. 신사 나. 남녀 간의 사랑

(2) 소

외연적 의미: 솟과의 동물. 몸집이 크고 다리가 짧으며 암수 모두 뿔이 있음. 온몸에는 짧은 털이 났는데, 꼬리는 가늘고 길며 끝에 털이 많음. 발굽은 둘로 찌지고 초식성이며 삼킨 것을 되새김함. 성질이 온순하고 참을성이 강하여 가축으로는 가장 오래되었음. 육용·유용(乳用)·사역용으로 나뉨

내포적 의미: 가. 부지런함 나. 우둔함 다. 착함

3. 수강생의 성적 관리와 강의 평가

수강생의 성적 관리는 강사가 학습자를 평가하는 것이고, 강의 평가는 학습자가 강의의 내용을 평가하는 것이다.

(1) 수강생의 성적 관리

수강생의 성적 관리는 강의의 성취 결과를 측정할 수 있고, 공정한 성적을 산출하는 데 필요하므로 아주 중요한 과정이다. 성적은 쓰기와 읽기



과제를 웹으로 받아 일일이 10점 만점으로 채점하여 누가 기록한다. 이를 쓰기와 읽기 과제로 나누어 예시해 보기로 한다.

쓰기 과제의 채점표는 다음과 같다.

<표3>

수강생(끝자리 둘은 허구)			1강	3강	5강	7강	9강	13강	합계
학과	학번	성명	쓰기	쓰기	쓰기	쓰기	쓰기	쓰기	
유아	20011000	이○○	9	9	9	9	10	10	56
--	-----	---	-	-	-	-	-	-	--

읽기도 마찬가지로 채점하여 다음과 같이 누가 기록한다.

<표4>

수강생(끝자리 둘은 허구)			1강	2강	3강	4강	6강	8강	10강	11강	12강	합계
학과	학번	성명	읽기	읽기	읽기	읽기	읽기	읽기	읽기	읽기	읽기	
유아	2001100	이○○	8	10	7	7	10	0	10	10	10	72
--	-----	---	-	--	-	-	-	-	-	-	-	--

위의 채점 결과는 학기말에 총점으로 환산, 계산하여 나타낸다.

## (2) 강의 평가

강의 평가는 강의가 종료되면서, 학습자들이 학교에서 제시한 질의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자신에 대한 평가도 함께 실시하므로, 스스로 어떤 학습 효과가 있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강의 평가 설문지와 답변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5>

강의 평가 설문지						
‘사고와 표현’ 담당 교수: 성낙수		평가 인원:100명		2003년 2학기		
질문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b>I. 학생 자신에 대한 평가</b>						
1. 학생 자신은 출석을 잘하였다고 생각 합니까?		63 (63)	22 (22)	13 (13)	2 (2)	0 (0)
2. 학생 자신은 과제를 처리와 학습 준 비를 철저히 하였습니까?		39 (39)	40 (40)	18 (18)	3 (3)	0 (0)
3. 학생 자신은 이 과목에 대하여 열의 를 가지고 지적 성장을 위하여 최선 을 다하였다고 생각합니까?		28 (28)	45 (45)	23 (23)	4 (4)	0 (0)
합산 백분율		130 (43.3)	107 (35.7)	54 (18)	9 (3)	0 (0)
<b>II. 수업 과정에 대한 평가</b>						
1. 강의 계획서는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었다.		25 (25)	48 (48)	24 (24)	3 (3)	0 (0)
2. 담당 교수는 강의 계획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다루었다.		29 (29)	43 (43)	24 (24)	2 (2)	2 (2)
3. 강의는 일정대로 진행되었으며, 휴강 시에는 보강이 이루어졌다.		36 (36)	39 (39)	24 (24)	1 (1)	0 (0)
4. 담당 교수는 학생의 이해를 돕기 위 해 적절한 교수법을 활용하였다.		22 (22)	41 (41)	33 (33)	3 (3)	1 (1)
5. 담당 교수는 동기 부여를 통해 학습 의욕을 북돋우려고 노력하였다.		19 (19)	37 (37)	37 (37)	3 (3)	4 (4)
6. 강의 내용은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편 이었다.		24 (24)	52 (52)	21 (21)	2 (2)	1 (1)
7. 담당 교수는 강의에 적합한 교재와 참고 문헌을 활용하였다.		27 (27)	35 (35)	31 (31)	4 (4)	3 (3)
8. 강의 중이나 그 외의 시간에도 질의 응답의 기회가 주어졌다.		23 (23)	28 (28)	37 (37)	10 (10)	2 (2)
9. 부과되는 과제는 강의의 이해·심화 에 도움이 되었다.		20 (20)	49 (49)	28 (28)	2 (2)	1 (1)
10. 이 강좌는 나에게 유익하였다.		22 (22)	43 (43)	31 (31)	2 (2)	2 (2)
<b>(실험/실습/실기) 해당 실험/실습/실기 과목에 한함.</b>						
11. 실험/실습/실기가 충실하게 이루어졌 다.		25 (25)	49 (49)	24 (24)	2 (2)	0 (0)
12. 이 과목을 통해 실험/실습/실기 능력 이 향상되었다.		24 (24)	40 (40)	32 (32)	3 (3)	1 (1)
합산 백분율		296 (24.7)	504 (42)	346 (28.8)	37 (3.1)	17 (1.4)

<한국교원대학교 학사관리과 제공>

### III. 맺는 말

본고에서는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실시하는 사이버 강의 중 ‘사고와 표현’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이 강의는 앞으로 교육자가 될 사람들에게 논리적 사고를 키워 주고, 올바른 논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이수시키는 과목이다.

강의는 학습 과제, 읽기 과제 혹은 쓰기 과제를 일주일에 한 번씩 웹 사이트에 제시하면, 학습자들이 이를 숙지하고 답안을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짐을 보았다. 과제를 평가하여 나타나는 결과를 학습자 스스로 보고, 그에 따라 학습에 대한 자체적인 발전을 시도하게 된다.

학기가 종료될 때 학습자 자신에 대한 평가와 강의 내용에 대한 평가가 함께 이루어져, 교육자는 이를 보고, 자신의 강의 내용에 대한 공과를 알 수 있으며, 차기 강의에 참조할 수 있다.

#### | 참고 문헌 |

- 김봉군 외(2002), “작문의 원리와 실제”, 새문사.  
김용섭(2000), “대학 국어 작문”, 학문사.  
박영민(2003), “과정 중심 비평문 쓰기”, (주)교학사.  
박태호(2000), “장르 중심 작문 교수 학습론”, 박이정.  
성낙수(1998), “논술 강좌--이론과 실제--”, 서울: 배재서관.  
성낙수(2003), “작문”, 서울: 신원문화사.  
성낙수·한철우·박영민(2003), “사고와 표현”, 서울: (주)교학사.  
이대규(1998), “수사학--독서와 작문의 이론”, 서울: 신구문화사.  
이상태·김종록(1997), “독서와 작문의 길잡이”, 서울: 형설출판사.  
이희승·안병희(2000), “한글 맞춤법 강의”, 서울: 신구문화사.  
임영환 외(1998), “작문의 이론과 실제”, 서울: 집문당.  
한철우 외(2003), “과정 중심 작문 평가”, 서울: 원미사.